

CBWF 이슈페이퍼

발행처 | 충북여성재단

발행일 | 2022. 08. 22

발행인 | 박혜경

홈페이지 | www.cbwf.re.kr

코로나19 이후 충북 여성 · 노동 · 가족돌봄

박민정 |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목차

1. 코로나19와 여성
2. 코로나19와 여성노동
3. 코로나19와 가족돌봄
4. 결론

1. 코로나19와 여성

• 코로나 19의 확산과 사회재난

- 2020년 1월 국내 첫 환자 발생이후 2022년 8월 현재 충청북도의 코로나19 확진 누적자는 668,040명, 10만명당 발생률 41,8%(41,820명)이며, 사망누적자는 25,752명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홈페이지, 2022)¹⁾

1) 질병관리청, 「충북지역 코로나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http://ncov.mohw.go.kr/\(2022.08.17.검색\)](http://ncov.mohw.go.kr/(2022.08.17.검색))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변화와 위기를 경험함에 따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었고 비대면화가 진행되었음
-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은 사회 다방면에서 더 큰 충격으로 나타남. 의료, 교육, 돌봄 등 사회 전 분야의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위험이 증가하여 생계에도 영향을 미침
 - 선행연구에서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여성, 특히 30대 후반 및 50대 여성의 고용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남. 고용충격이 큰 대표적인 업종은 고용안정성이 낮고, 여성중심의 대면서비스 업종임(신선미 외, 2022)
 - 사회서비스도 위축되면서 여성의 돌봄 부담은 증가하였음. 어린이집, 학교, 요양시설 등 돌봄 교육 시스템도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운동을 하지 못하면서 돌봄 공백의 확대되어 돌봄 부담이 증가함(신선미 외, 2022)
- 이에 본 글에서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충북여성의 어려움과 사회제도의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코로나19와 여성노동

1) 코로나19와 여성노동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다양한 계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그중에서 충북 내 여성에게는 어떤 충격이 가해졌는지 확인함
 - 충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을 변곡점으로 연령별 차이를 보임. 40대 이상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지만, 25세~39세의 연령대는 참가율이 감소한 이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음. 35~39세는 20년 2/2분기에 증가했지만, 2021년 2/2분기에 급격히 감소했으며, 25~28세와 30~34세는 2020년 2/2분기에 감소 후 21년에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음.

[표 1] 충북 여성 연령별(5세단위)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연령별	2018년 2/2	2019년 2/2	2020년 2/2	2021년 2/2
20~24세	56.1	54.0	49.1	56.1
25~29세	76.9	73.3	68.6	70.3
30~34세	65.7	71.1	63.2	64.9
35~39세	60.1	61.1	69.1	49.6
40~44세	73.4	68.0	67.6	70.3
45~49세	70.6	73.0	76.2	79.5
50~54세	67.3	70.0	71.8	73.7

연령별	2018년 2/2	2019년 2/2	2020년 2/2	2021년 2/2
55~59세	67.0	66.7	73.9	72.2
전체	54.8	56.1	56.4	57.3

주 : 60세 이상과 19세 이하는 제외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8~2021)

- 충북 주요산업은 농업,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임. 4년간 데이터를 보면, 여성취업의 산업별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음. 다수의 산업분야에서 여성 취업자의 비중은 증가했음. 전통적 남성중심 산업인 건설업과 운수 및 창고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비율이 증가함. 그중 여성 집중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I),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교육 서비스업(P)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취업자수 비중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분야임²⁾
- 고용측면에서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많지만,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줌. 충청북도의 성별 고용특징은 남성은 생산직 비중이 높고, 여성은 서비스/판매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박진희 외, 2021) 나타남
-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0년 2/2분기를 기준으로 제조업(C)과 음식 및 서비스업(I)의 비중감소는 여성이 감소한 만큼 전체 고용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충격이 주로 여성에게 가해졌음을 보여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은 코로나19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재난상황에서도 필수적인 영역임을 보여줌

[표 2] 산업별 취업자 비교³⁾

(단위 : %)

산업 분류	2018년 2/2		2019년 2/2		2020년 2/2		2021년 2/2	
	충북	충북여성	충북	충북여성	충북	충북여성	충북	충북여성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	11.3	11.5	11.2	11.7	11.1	10.6	11.5	11.1
B	0.2	0.0	0.1	0.0	0.0	0.0	0.1	0.0
C	20.6	14.7	21.1	14.8	23.4	16.9	22.5	16.1
D	0.1	0.0	0.1	0.0	0.1	0.0	0.2	0.0
E	0.9	0.3	0.8	0.3	0.7	0.3	0.8	0.3

2) 충청북도의 주요산업은 식료품 제조업등 제조업임. 식료품 제조업의 LQ는 5.72로 주요 10개 산업 중 가장 높음. 충북에서 2010년대 성장이 가장 빠른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은 LQ는 2.24임(박진희 외, 2021).

3)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A.농업, 임업 및 어업(01~03), B. 광업(05~08), C. 제조업(10~3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 ~ 39)
 F. 건설업(41~42), G. 도매 및 소매업(45~47), H. 운수 및 창고업(49~52)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J. 정보통신업(58~63), K. 금융 및 보험업(64~66), L. 부동산업(6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P. 교육 서비스업(8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U. 국제 및 외국기관(99)

산업 분류	2018년 2/2		2019년 2/2		2020년 2/2		2021년 2/2	
	충북	충북여성	충북	충북여성	충북	충북여성	충북	충북여성
F	7.0	1.1	6.3	1.3	5.8	1.0	7.2	1.8
G	9.8	10.8	8.8	9.1	8.9	9.6	8.2	8.6
H	4.9	1.1	4.9	1.0	5.2	1.0	5.5	1.3
I	8.0	11.8	7.7	11.9	6.7	10.1	6.7	9.8
J	1.5	1.3	1.0	0.5	1.1	0.5	1.1	0.5
K	2.0	2.7	1.8	2.3	1.9	2.9	1.8	3.0
L	1.8	1.3	1.8	1.6	1.6	1.3	1.5	1.5
M	1.9	1.6	2.3	1.8	1.9	1.8	2.2	2.0
N	5.2	4.0	5.5	4.4	4.9	4.2	5.1	4.6
O	4.9	4.8	4.7	3.9	4.6	4.9	3.6	3.6
P	6.1	9.7	5.9	9.6	6.2	9.6	6.0	9.3
Q ⁴⁾	8.0	15.5	9.2	17.7	9.3	17.7	10.1	19.6
R	1.3	1.6	2.1	2.1	1.9	2.1	1.7	1.8
S	4.4	5.9	4.5	5.5	4.6	5.2	4.0	4.6
T	0.1	0.3	0.2	0.5	0.1	0.3	0.2	0.5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2017-2021)

- 앞에서 살펴본 양적인 변화는 코로나19에 의한 충격이 산업별, 연령별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음. 질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고용안전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여성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2018년 하반기와 2021년 하반기 간 비중변화는 0.7%p수준임. 반면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2018년 하반기 20.5%에서 2021년 24.7%로 4.2%p증가함. 남성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는 소폭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임

[표 3] 충북 종사상지위별 분포

(단위 : %)

종사상지위별	2018년 2/2		2019년 2/2		2020년 2/2		2021년 2/2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상용근로자	47.3	51.7	45.7	53.1	47.4	54.4	48.0	53.7
임시근로자	20.5	11.0	23.4	10.6	23.6	10.5	24.7	10.1
일용근로자	3.3	6.0	3.0	5.6	2.6	4.4	2.8	5.5

4) 충북 주요산업의 세부 지표

산업분류	임금근로자(천명)	임금수준(만원)	임시·일용직 비중(%)	비정규직 비중(%)
계	663	263.5	28.8	38.0
A	7	153.1	76.7	81.0
C	196	319.4	6.5	14.6
I	32	144.1	74.1	78.1
P	48	283.5	26.6	32.6
Q	91	181.4	38.6	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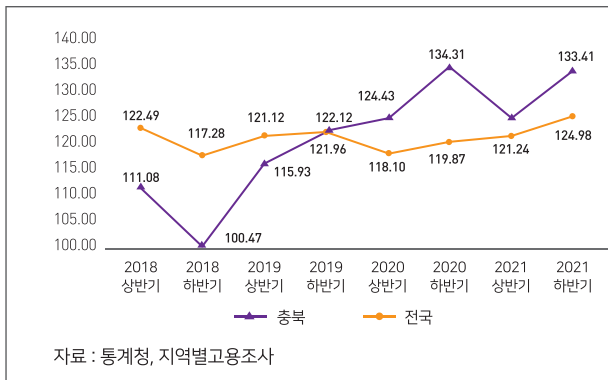
주 : 자료의 한계로 비정규직은 임시, 일용, 기간제로만 구성하였음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1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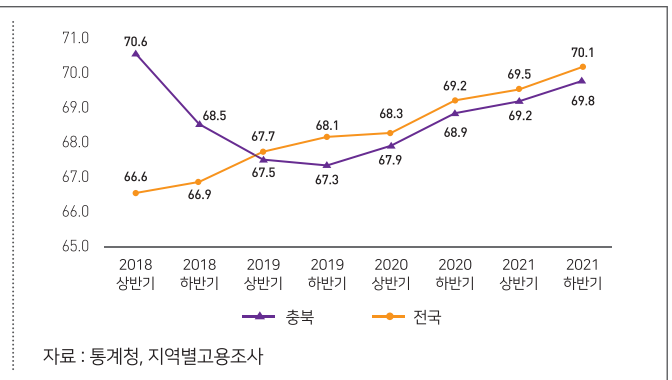
종사상지위별	2018년 2/2		2019년 2/2		2020년 2/2		2021년 2/2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3.4	7.1	2.8	5.7	2.2	4.6	1.9	4.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10.6	22.9	10.4	23.7	11.2	24.6	10.6	25.0
무급가족종사자	14.8	1.3	14.7	1.4	12.9	1.5	12.0	1.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분기별 종사상지위 수/성별 × 10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8~2021)

- 충북의 임시일용직 남성 대비 여성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국보다 높아지고 있음. 2018~2019년은 전국보다 낮은 100~115% 수준을 보였음.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는 전국보다 높아졌으며 130% 수준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충북 내 여성의 일자리 질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줌
- 성별 임금격차 증가는 저임금 직종에 여성이 몰려있다는 의미임. 상용직의 평균 3개월 임금 차이는 2018년은 전국의 66.6%보다 높은 70%였지만, 최근에는 전국평균보다 낮으면서 2018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69.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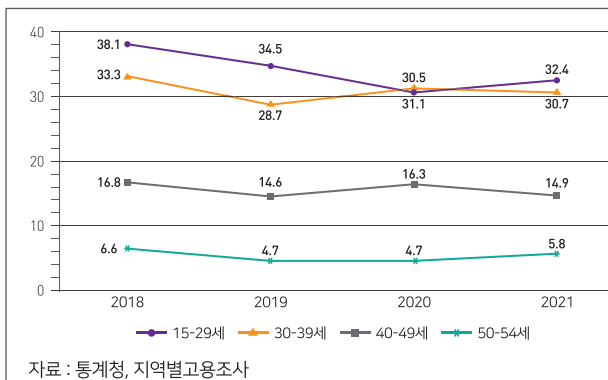


[그림 1] 임시일용직 남성대비 여성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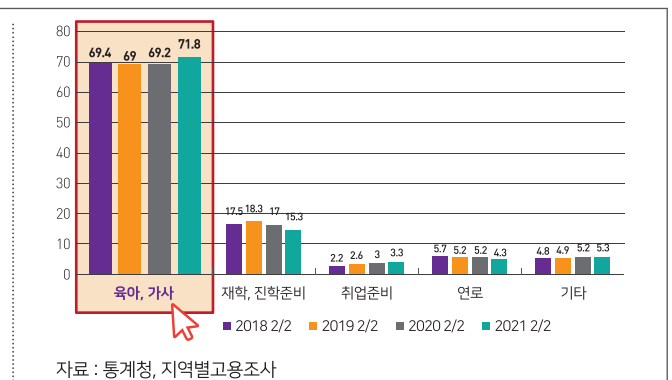


[그림 2] 상용근로자_평균3개월 임금_남성대비여성비중

- 충북 경력단절여성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에서 높음. 충북 여성의 비경제활동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은 육아와 가사가 다른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30대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양육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그림 3] 연령대별 경력단절여성비중



[그림 4] 충북 여성 비경제활동 이유

주 : 산출방법 : 15~54세 기혼여성(천명)대비 경력단절여성(천명)의 비중(%)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가족실태조사

- 정리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질 측면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충북의 여성경제활동 참여는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다양한 산업에 분포하고 있음
 -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불리한 이중화된 노동시장의 형태를 보이며, 노동시장 참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육아 가사로 나타남.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된 시점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고용형태가 악화되었고,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관찰됨
 - 이러한 요인으로 공적 돌봄 기능의 약화에 따른 개인의 돌봄 책임증가, 여성 집중산업분야의 편입 어려움에 따른 실업자증가, 경제 불안정에 따른 임시일용직 증가를 주요요인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3. 코로나19와 가족돌봄

1) 공공돌봄서비스 부족으로 가족돌봄 증가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전국적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돌봄 공백으로도 나타남. 전 사회적인 돌봄 서비스 공백은 돌봄 책임이 가족에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함. 특히 여성으로의 돌봄 책임 회귀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위치와 가족 내 성 불평등한 돌봄 책임으로 인한 결과로 나타남.
 - 선행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후 돌봄이 가정영역으로 회귀하면서 전통적인 성별분업구조가 공고해지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음(최윤선, 2022). 코로나19 확산이후 남녀 모두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증가했지만, 전체육아휴직자 중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맞벌이 여성은 무급자녀 돌봄시간이 평균 1시간 44분, 전업주부는 하루 3시간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됨(은기수, 2020)
 - 영유아 자녀의 돌봄은 여성 사회참여의 중요한 변수임.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충북 여성 전체의 고용률이 전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시기별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2020년에 급격히 낮아졌다가 2021년에 회복되었지만, 전국보다 지속적으로 낮음. 자녀가 초등학생인 여성의 고용률도 2020년과 2021년에는 급격히 하락하였음. 반면 1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의 큰 차이가 없음

[표 4] 자녀연령별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자녀연령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고용율 (%)	계	56.7	59.6	57.0	63.0	55.5	58.7	56.2	59.9
	6세 이하	48.1	45.1	49.1	50.2	47.5	44.4	47.5	46.7
	7~12세	59.8	68.7	61.2	70.8	58.5	62.5	59.0	63.1
	13~17세	68.1	76.0	66.1	77.8	65.3	76.9	66.1	76.4

자녀연령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취업시간 (H)	계	37.2	39.1	36.6	38.6	32.4	33.7	36.0	36.7
	6세 이하	33.9	36.2	33.6	36.7	29.9	31.7	33.5	34.3
	7~12세	38.4	39.8	37.5	39.1	33.3	34.6	36.8	36.3
	13~17세	40.2	41.5	39.5	40.4	34.6	34.4	37.9	39.5

자료 : 통계청(2018-2021), 지역별고용조사

• 가족 내 돌봄 책임의 편중

- 자녀 돌봄의 책임이 여성인 어머니에게 편중되어 있음. 가족 내 돌봄 책임에 있어서 아이 어머니는 72.8%, 외조부모는 13.7%였고, 아이 아버지 등은 매우 낮은 비중을 보임

[표 5] 기관 이용 외 시간 영유아 주 돌봄자

(단위 : %)

구분	아이 아버지	아이 어머니	아이 친조부모	아이 외조부모	친인척 이웃	아이돌보미 (정부지원서비스)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기타
전국	3.7	76.2	5.7	9.5	0.6	1.2	2.0	1.2
충북	2.8	72.8	5.2	13.7	2.8	2.8	0.0	0.0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가족실태조사

- 돌봄의 주체는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돌봄에서도 큰 차이가 없음. 집에서 지내는 아동의 비중이 58.3%이며, 그 외에도 학원 등 민간교육시장에서 보내는 비중이 높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높은 충북임에도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것은 이는 충북에서 적절한 공적 돌봄 서비스의 부재를 보여줌

[표 6] 초등학교 자녀가 방과후 주로 시간 보내는 곳

(단위 : %)

구분	학원	초등 돌봄교실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집에서 지냄 (주로 보호자 있음)	집에서 지냄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기타
전체	37.7	6.4	2.8	2.2	42.1	8.3	0.5
충북	19.7	8.7	4.4	0.0	58.3	9.0	0.0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가족실태조사

-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돌봄 서비스가 필요함. 일·가정조화를 위한 조사에서도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돌봄에 대해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여성일수록 해당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⁵⁾

5)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공통적임(하석철, 2018; 김영숙외, 2014)

[표 7] 일·가정조화를 위한 정책의견

(단위 : %)

구분		초과 근로시간 축	재택 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 근무제 확산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 지원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	가족 친화 기업 문화 확산	일가정을 위한 인식 확산	경력 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기타	잘 모르겠음
전체	소 계	11.0	15.7	9.1	17.3	6.4	10.8	8.5	0.7	20.4
	남 성	14.7	18.4	7.7	12.3	8.3	12.1	4.0	1.0	21.5
	여 성	7.5	13.1	10.6	22.2	4.5	9.4	13.0	0.3	19.4
	취 업	13.3	18.1	9.1	17.1	6.6	12.1	7.3	0.8	15.6
	비취업	6.4	10.8	9.2	17.8	5.8	7.9	11.1	0.4	30.6
충북	소 계	13.6	12.6	7.7	19.4	6.3	12.4	7.2	0.1	20.7
	남 성	18.3	14.7	5.6	14.2	7.8	15.6	4.2	0.0	19.7
	여 성	8.8	10.3	9.8	24.8	4.8	9.2	10.3	0.2	21.7
	취 업	16.9	13.9	8.0	20.0	5.5	14.7	6.7	0.1	14.2
	비취업	5.8	9.4	7.0	17.9	8.3	7.0	8.4	0.0	36.0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가족실태조사

• 돌봄 서비스는 충분한가?

- 지역별 만0~5세 아동 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률을 살펴보면, 시군별 편차가 나타남. 지역별로 75.0%~141%로 차이가 있음. 또한 어린이집 정원이 100%가 넘는 지역도 어린이집 1개 소당 정원수가 많아 대형화 되어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어려울 수 있음. 실제로 2022년 보육통계에 제시된 충북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의 수는 38개로(총 읍면동 수 153개) 나타나 지역별 편중과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보건복지부, 2022)⁶⁾

[표 8] 충청북도 시군 어린이집 정원율 및 개 소당 정원 수

구분	아동수대비정원(%)			어린이집 1개소당 정원수(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충 청 북 도	84.7	88.2	93.4	53.2	54.1	54.8
청 주 시	82.7	85.8	90.8	49.6	50.3	51.5
충 주 시	87.2	89.6	94.8	55.2	58.4	59.8
제 천 시	75.9	80.4	80.6	55.5	57.7	55.5
보 은 군	66.9	65.9	75.0	63.8	73.0	73.0
옥 천 군	75.7	83.9	82.8	55.8	53.3	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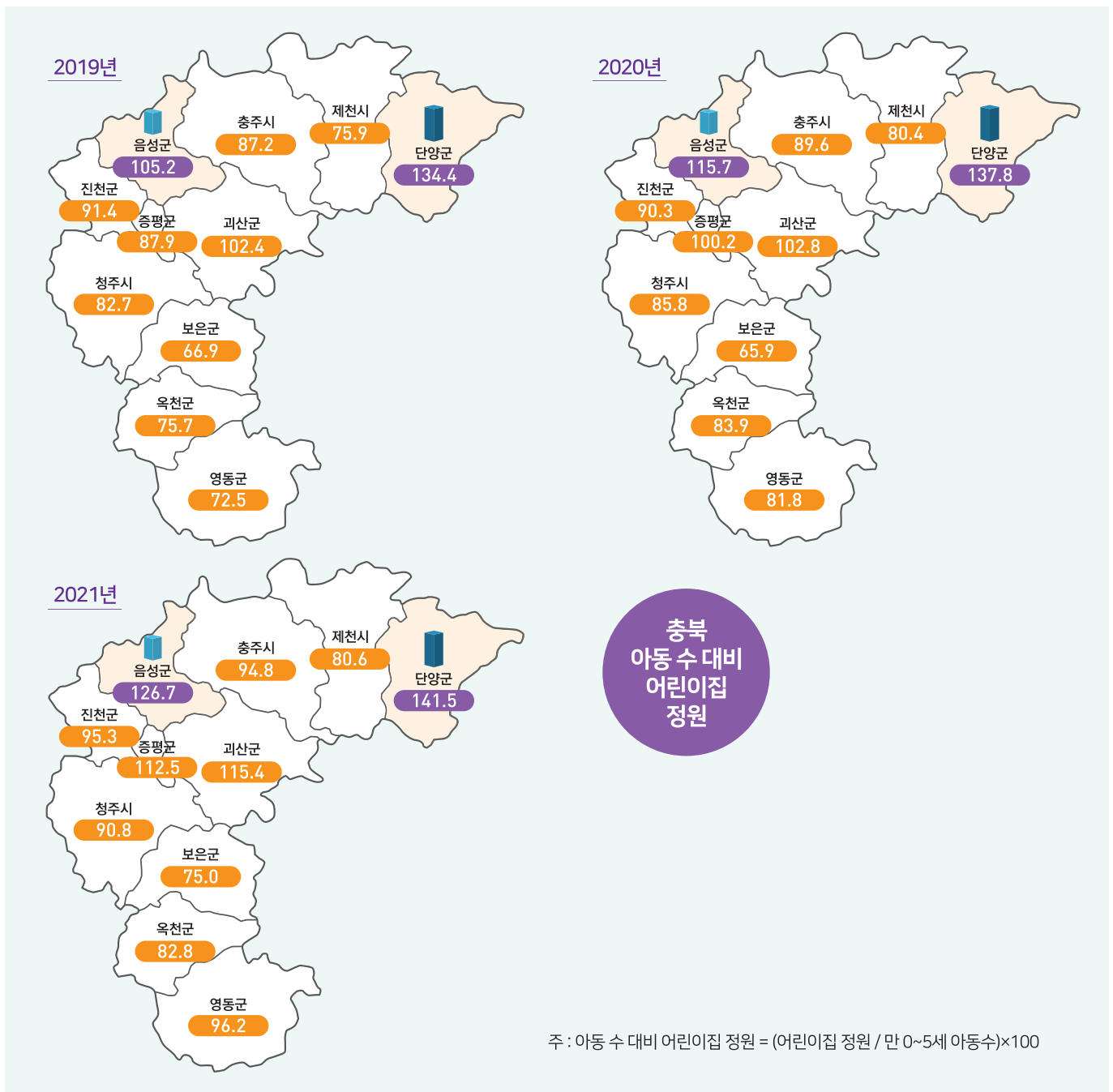
6) 전국·충북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

구분	총 읍면동수	미설치 지역수		
		계	읍면	동
전국	3,515	554	500	54
충북	153	38	35	3

구분	아동수대비정원(%)			어린이집 1개소당 정원수(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영 동 군	72.5	81.8	96.2	65.9	65.9	65.6
진 천 군	91.4	90.3	95.3	65.1	65.2	66.4
괴 산 군	102.4	102.8	115.4	70.7	62.8	62.8
음 성 군	105.2	115.7	126.7	56.6	57.0	56.0
증 평 군	87.9	100.2	112.5	73.5	73.4	72.9
단 양 군	134.4	137.8	141.5	66.1	65.	63.1

주 : (주민등록인구 만0~5세/어린이집 정원수)×100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전국적으로 보육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강화되고 있음. 충청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됨. 여전히 민간비중이 높으며, 도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음에도 직장어린이집의 정원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양육자의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도와 이용률을 감안하면 보다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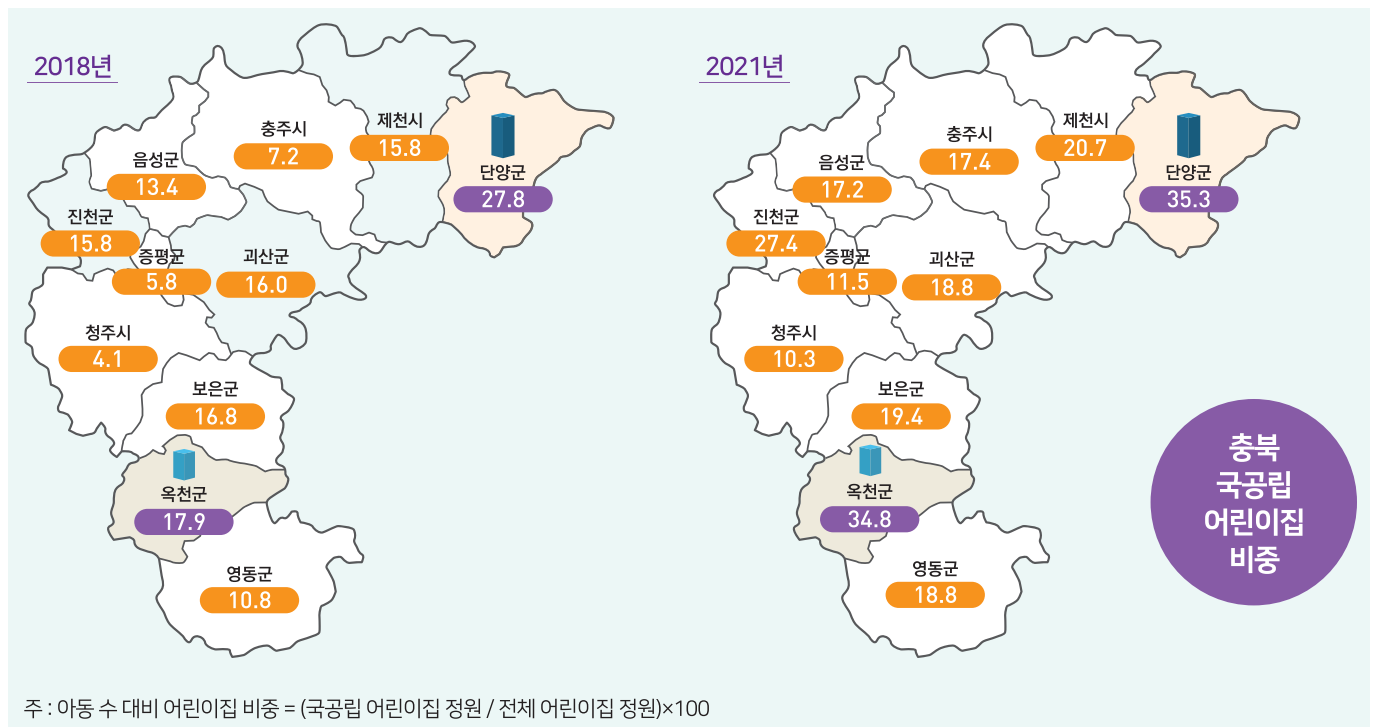
[표9]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비중 및 이용률

(단위 : %)

어린이집 유형	정원율							
	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공립	13.3	7.5	16.0	9.6	18.6	12.3	20.9	14.4
사회복지법인	7.4	17.4	7.3	16.9	7.3	16.9	7.3	17.1
법인·단체 등	3.2	4.4	3.1	4.5	3.0	4.1	3.0	4.0
민간	51.2	52.4	49.4	51.0	47.5	49.2	46.0	47.1
가정	19.9	14.0	18.8	13.5	17.8	12.7	16.6	12.1
협동	0.3	0.3	0.3	0.2	0.3	0.2	0.3	0.2
직장	4.7	4.0	5.1	4.3	5.5	4.6	5.9	5.1

주 : 총 어린이집 정원 수/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수×100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7) 충청북도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률(2021년)

어린이집 유형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이용률	76.1%	82.5%	63.6%	67.3%	74.8%	80.4%	74.7%	70.8%

4. 결론

- 돌봄 서비스는 여성 사회참여의 전제조건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적 돌봄은 악화되었고, 가족 돌봄은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되었음.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에서도 지역 내에서 중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필수서비스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함(장지연, 2020, 양난주, 2020)
-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은 다양한 업종 중 서비스업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고, 서비스업이라는 여성 집중 취업업종의 특성과 불안정한 고용형태, 그리고 가족 돌봄 책임의 여성 전가로 인해 충북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더욱더 빠르게 이탈하였음
- 충북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은 사회참여가 어려우며, 경력 단절 여성 또한 사회참여 어려움의 주된 요인이 양육과 가사임. 사회참여를 위한 필요한 정책으로 보육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하지만 여전히 돌봄은 가족 내, 특히 여성이 해결해야 하는 인식과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보편적인 사회적 돌봄의 제공은 기혼여성에게는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도내 시·군 지역에서 특히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논문 및 저서]

- 장지연(2020). 코로나19 팬데믹과 유 무급 돌봄노동. 월간노동리뷰. 2020년 11월호.
- 신나리 · 노필순 · 윤현정 · 김경화 · 송지은(2021). 제4차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2-2026). 충청북도 충북대학교.
- 최윤선(2020).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나 일자리 위기의 젠더특성과 향후과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신선미 · 오은진 · 정성미(2022). 코로나19이후 여성일자리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특집 여름호.
- 박진희 · 정재현 · 김수현 · 홍현균 · 김새봄 · 정순기 · 방글 · 공정승 · 이혜연 · 김영달 · 이용호 · 권혁진 · 김종숙 · 이학기 · 홍성민 · 윤문희(2021).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20~2030). 한국고용정보원.
- 은기수(2020).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돌봄의 변화. 월간노동리뷰 2020년 11월호.
- 여성가족부. 2020.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하석철(2018). 인천시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돌봄실태 및 정책욕구. 한국콘텐츠학회. 18(5). 446-455.

[통계자료 및 현황자료]

- 보건복지부(2017-2021). 보육통계.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 통계청(2017-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17-2021). 지역별고용조사.